

긴급 제언

난가(卵價) 발표는 어떻게 해야 옳은가?



소비시장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가!

지금 우리 채란업체는 난가 발표 문제로 혼란을 치르고 있다. 그 동안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장기불황 등 저난가가 유지되다 2004년 하반기부터 계란가격이 상승하여 고난가를 유지해 왔다.

그러던 것이 2005년 4월을 기점으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하락하기 시작하여 불황이 될지도 모르는 시점에 와 있다. 그 동안 난가가 호조를 보여 노계(老鷄)를 적시에 출하하지 않았고, 2004년 4/4분기에 병아리가 생각보다 많이 입추가 되어 현재와 같이 난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일부 생산자 위원들이 높은 난가를 유지한다고 이를 고집한 것도 하락요인이 되어 노계의 도태 지연을 불러와 5월 중순이후 일부 체화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4월만 해도 노계 도태를 기피하여 100만 여수가 도태되지 않았다고 한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3월 말부터 일부 유통센터에서부터 계란이 밀리기 시작하여 서서히 재고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미 4월말에는 다량의 계란이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5월초부터 일부 농가까지 밀리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지금의 난가는 8개 지역에서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 난가의 경우 수도권 양계농가를



오 세 울

본회 포천채란지부장
전국계우회연합회 수도권 난가정보위원

대상으로 출고 상황과 거래 상인들을 통해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참고한다. 이때 지방난가 정보위원들을 통해 각 지역의 수습상황을 파악·분석한다.

이처럼 난가를 발표할 때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일부 지방정보위원들은 이해타산으로 정보를 주지 않고 무조건 난가 인하 발표를 반대하기도 한다. 수도권 정보위원들이 난가의 시장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면, 그 근거를 물어보며 심지어는 막말까지 하기도 한다.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시장의 흐름을 직시해야 하는데 너무 고난가에 취해서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도권의

난가를 묶어놓고 뒤에서 계란을 싸게 덤핑을 하기도 한다. 그 근거를 물으면 그것은 품질저하 계란이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품질저하 계란이라고 꼭 덤핑을 하란 법은 없다. 품질저하 계란인지 정상계란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모든 것을 아전 인수(我田引水)격으로 몰고 간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난가 정보위원들은 자신들의 자금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봉사정신을 가지고 나의 사업이라 생각하며 상인들과도 어려운 싸움을 하며 일을 한다. 어떤 분은 조합의 유통센터와 수도권의 농가가 계란이 많이 체화되었다고 하면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그 계란도 시장을 나와 소비자들에게 유통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조합에 소속되든지, 농가에 소속되어 있는지 상인이 가지고 있는 계란이 체화되면 시장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그 계란은 소비자한테 전달되고 시장에서는 체화된다. 필자는 계란도 시장경제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연착륙하여 계란가격을 발표할 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80%는 시장상황에 따라야 부작용도 적고, 장기적인 축산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한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은 아직도 영세한 농가가 70%를 점하고 있다. 너무 자신의 틀에서만 생각을 말고 소농가도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다소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수도권의 난가정보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

요즘, 5월 노계 도태 물량이 약 400만수가 도태되었고, 4월에는 노계물량이 없고 가격도 비싸서, 150만수 밖에 작업을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도태된 물량의 계란 생산량은 불과 2개월 동안 275만개 밖에 안되는데 4~5월에 생산에 영향을 미칠 작년 9~10월

에 입추한 신계(헛닭)의 계란 생산량은 4~5월에 500만개에 이른다. 노계 도태 생산량보다 신계의 생산량이 훨씬 많다. 또한 5월과 6월 더위 등으로 소비가 급감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계란 생산량은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는 단순 수치로만 계산한 것임을 독자들은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이는 일부 지방정보위원들이 노계가 잘 빠지니까 계란이 금방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수도권 난가 정보위원들 보고 버티라고 하는데, 상인들이 이를 따라주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고 난가를 마냥 하락시킬 수만은 없으니, 격려와 좋은 말씀을 주시면 힘이 되겠다.

계란은 공급이 부족해야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란이 체화되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계란을 외면하게 된다. 이런 때일수록 생산자들도 생산량을 조절하여 난가가 생산비 대비 적정이윤이 나도록 양계업이 되었으면 한다. 단순논리로 생각하건데, 난가가 내려도 소비는 지금상황에서 증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난가가 하락하면 구매량은 증가하고 노계 도태는 더 될 것이다. 노계 장사들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4월 노계 가격이 상당히 높았을 때도 노계를 50%밖에 작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생산자들이 높은 난가를 이유로 50%의 닭을 사육하고 품질이 나쁜 계란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노계가 원활하게 도태가 되고 있고 난가도 거의 바닥을 치고 있고 생산 농가에서는 생산성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빨리 도태내지 강제 환후라도 시키고 생산조절을 하고 계란 재고를 줄일 때 계란 유통 상황이 다소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난가 정보위원들이 기쁜 마음과 보람으로 봉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오해 없이 우리 양계 업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양계**